

Open-Ended

3호

[óupən-éndid]

장애가 있어도, 자유로이 생각대로 대답할 수 있는
같은 것 같은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축용어

행동하는 일상, 힘이되는 여성주의 [여기, 열다] 18대 총학생회

<http://yonsei.ac.kr/~ysfem> empower@yonsei.ac.kr

Part 1. 먹는 자의 이야기 - '금지된 욕망, 식욕'

음식을 많이 먹고, 주체적인 성적 욕망을 지니며,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여성은 남성이 두려워하는 대상 1호라고 어느 강의, 어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식욕, 성욕, 지식욕은 모두 가부장제 사회가 규정해놓은 수동적 객체로서의 여성에 반하는 명제로서, 여성이 욕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려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남성의 권위에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 3가지 중 나의 가장 강력한 욕구로 존재하는 식욕은 그 억압이 가장 일상적이라고 (나에게는) 생각된다. 누가 그래? 라는 반응을 보일 분들이 있을까 싶어 친절히 실생활을 예로 들어 드리자면, 언제나 밥 먹을 때는 '살찐다.' '무슨 여자가 그렇게 많이 먹니?' 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학생 식당에서는 여학우라는 이유로 남학우들이 받는 그릇한 밥그릇을 받지 못하는 등 등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일상적 '그들의 안부 인사'는 나의 다양한 식욕들, 배가 고파서 뭘가를 먹고 싶거나, 특정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거나, 그냥 외구와구 먹고 싶은 많은 식욕들을 한번쯤 돌아보며, 자책하게 만들곤 했다. 특히나 '사방사방'하기를 강요받는 여학생 중 하나로서 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가벼운 케이크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은 그 날 하루 섭취할 칼로리를 재빠르게 계산한 후, 한창의 고민 끝에 내려야 할 결정인 것이다.

무언가를 먹고 있을 때면, 끊임없이 들려오는 '살찐다.'는 소리와 먹지 않으면 들려오는 '다이어트 하나?' 라는 소리들은, 여성에게 식욕이라는 것을 제거하고, 적당히 밥 먹고, 마른 몸매를 유지하기를 강요한다. 먹지 않으면 안 되나, 먹어서 살이 찌면 안 되는, 그런 사회에서 누가 식욕을 탐할 수 있단 말인가.

Eating makes you feminist!

Part 2. 먹는 것을 만드는 자의 이야기 - '요리를 좋아하는 페미니스트'

이렇게 언제나 자신의 먹는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을 만드는 행위의 주체는 언제나 여성이었다. 삼순이는 말했다. "매일 초콜릿 만들고, 과자 만드는 게 내 일인데, 살 안 찌고 배겨?" 먹는 행위와 먹을 것을 만드는 행위를 동떨어뜨려 생각하는 가부장제의 시선에 대한 촌철살인이다. 여성에게 금지되어있는 것 혹은 여성으로서 내 의사와 반하여 강요되는 것만이 폭력인 것이 아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을 자신들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가부장제 사회의 시선은 좀 더 복잡하게 날 짜증나게 한다.

가끔 받는 시선들: "페미니스트가 요리를 좋아하네, 화장도 하네, 뭐야, 다른 여자들처럼 다들 바 없잖아!"에 대해 굳이 다들 바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으나, 굳이 다르지 않은 수많은 요소들 중에서 그들이 규정하는 여성성을 대변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 페미니스트들을 가부장제 사회의 적합한 여성으로서 껴맞추고 싶어 하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이제 안타깝기까지 하다. 가부장제 사회의 시선은 날 요리 좋아하는 페미니스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잘하는 '여성성에 충실한' 즉, '남편 뒷바라지 잘할' 여성으로 바라봄으로써, 나에게 다시 '남성성' '여성성'의 선택지를 내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완벽한 '여성'으로 존재하든지, 아니면 '남성성의 기회' (사회를 비판하고, 혼자서 살아감)를 얻음으로써 그들이 규정하는 '여성성'에 해당하는 것들을 포기하든지.

Part 3. Eating makes you feminist!

너는 왜 사서 고생하니, 라는 말들을 종종 듣고는 한다. 하지만, 인간의 3대 필수 항목인 의식주(衣食住)의 식(食)조차 내가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는 사회에서, 나에게 먹는다는 행위, 그리고 먹을 것을 만든다는 행위는 이미 고생이다.

분명 나의 한탄 섞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래, 페미니즘은 참 사람 골치 아프게 하는 운동이야. 별 이상한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봐, 라고 글을 발로 밟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꼭 부러지게 이야기 논점을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그러니 그 어이없는 스펙트럼을 어서 건너차라! 라고 가부장제 사회에 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먹을 때, 먹을 것을 만들 때도 졸졸 통감아지처럼 따라붙는 가부장제의 시선을 많은 여성들이 느꼈을 것이라 믿는다. 당신들이 그 시선을 느꼈을 때, 그리고 그 시선을 살짝 무시해주며 당신의 욕망에 충실할 때, 당신은 이미 페미니스트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by_ 상이

배고픈 사람 모여라, 밥 먹자

Contents

- 2 내가 힘을 생각하는 이유
장애인 이동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 3 평택과 국가폭력, 그리고 기억의 정치
나의 섹슈얼리티, 아직은 제국 없음
- 4-5 [좌담] 넌 이름이 뭐냐?
[광고] 제 9회 여성제를 함께 꾸려갈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 6 여자친구들아, 떠나자!
[광고] 월경 곤란제 시범 운영을 진행 중입니다!
- 7 [후기] '차이만 있고 차별은 없는 세상'은 없다고?
[후기] 기억을 떠올리며 강해지는 그녀들
- 8 [후기] 정의파 언니들을 만나다
[서평] 가와카미 히로미의 '땀을 발다'에서 발견하는 가능성
성찰과 환상, 그리고 페미니즘
[광고] 여성학 심화 세미나 함께해요

내가 힘을 생각하는 이유

어렸든 나는 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한다

문득 나는 요즘 참 힘을 얻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기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자 나에게 미안해진다. '왜 나는 힘을 기르지 않고, 얻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화가 나는 것은, 나는 살면서 힘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본다. 자기 안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자신의 힘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의기양양할까.

- 중도 앞에 붙여진 자보의 '교수 대상 반성폭력 교양 강좌 강좌'란 내용을 보고 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가운데 "왜 쓸데없이 저런 걸 늘리고, 강화하고 그래."라고 말하는 남학생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 자신은 후줄근하게 입으면서도 "너 너무 남자에 같다. 화장도 좀 하고, 치마도 입어봐." 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남학생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 농구장을 장악한 남학생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힘'에 대해 나는 여성인 나와, 그리고 남성을 비교해 본다

끝이어서 생각한다. 힘과 권력,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떨어질 수 없는 성차별, 성별권력, 성폭력에 대해서도 나는 끝까지 빠지게 맘 쓰리게 생각하다보니, 아이고, 힘이 빠진다.

남성들의 물리적인 힘의 세기는 권력으로까지 나아간다. (여성들의 힘은 얼마나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 되는 경우가 많은지. 오히려 남성들의 힘은 항상 길러질 수 있고, 길러져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그 위력은 점점 커진다.)

여성과 남성의 힘은 서로 대조적일 정도로 분명, 다르게 자랐다. 어릴 때부터 태권도 배우고 뛰어놀면서 사내대장부로서 씩씩한 것이 당연시 되며 길러진 힘과, 말괄량이가 되면 조소하지 못해서 안됐던 '여자다움'으로 묶이며 길러진 힘은 그 배경부터가 달랐다. 물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힘은 길러진다. 하지만 나는 아쉽다. 내가 나의 힘을 잘 몰랐을 때, 내 힘을 키우는 시기에 파아노 대신 태권도를 배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형대신 농구공을 선물 받을 수 있었다면 또 얼마나 달랐을까.

오히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한 힘을 키워가는 시간이 점점 많아진다. 아침 지하철에서 나는 여자씨들의 몸과 손을 신경 써야 하고, 수업 시간엔 교수의 언어성폭력에 대해 맞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치마와 화장을 강요하는 친구들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조차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집에 돌아오는 길엔 누군가의 구두소리에 조심스러워진다. 내 몸은 점점 작아지고, 내 힘을 키우는, 내 힘을 즐기는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이제, 나에게 내가 말한다. 자꾸만 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해보라고. 열 받으면 말하고, 몸을 움직일 줄도 알라고 한다. 부당한 힘과 권력은 내 힘에 의해 치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내가 부숴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잘못된 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옳은 힘으로 맞설 수 있다.

어느새 나는 나를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소중한 지지와 공감, 이야기로부터 키워나갈 힘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힘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by_ 우주
우울해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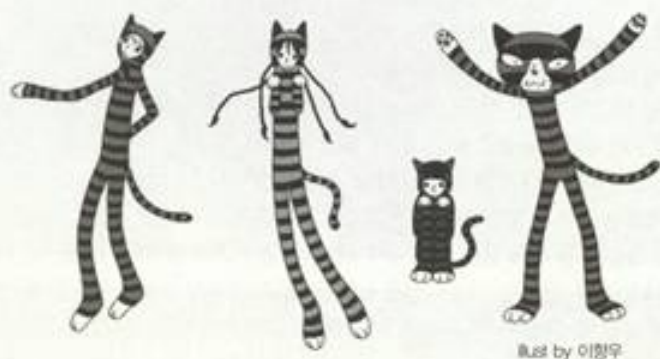


Illustration by 이형우

장애인 이동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

5월 29일 월요일자 연세대학교 학보 <연세춘추>에는 '나쁜 장애인은 없다! 비장애인이 던지는 질문 39가지'라는 제목을 단 기획기사가 나왔다. 같은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웹진 <연두> (<http://www.yondo.net>) 에서도 장애학생의 수업권, 이동권 문제를 다루었다. 한국 사회의 주요 일간지뿐만 아니라 대학의 학보에서도 야심찬 기획기사가 될 만큼, 장애인의 권리문제는 여러 소수자의 권리문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혹은 가장 유명하고 있는 문제다. 이에 대한 글과 말들이 넘쳐나지만 여전히 찜찜함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착한 비장애인' 이 넓은 아량과 배려의 정신으로 장애인 문제를 바라보지, 하는 선에서 대부분 논의가 끝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이 글에서 장애인 이동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나 자신도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나는 올해 1월, 발목뼈 하나가 툭 부러져, 전치 7주 진단을 받았고 두 달에 가깝게 오른쪽 발에 깁스를 한 채로 생활했다. 3월에 개강을 해서도 깁스를 풀지 못 했고, 한 달 정도 목발을 짚고 다녔고, 개강초반 몇 주일 동안은 집에서부터 학교 안 건물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버스비보다 훨씬 비싼 택시비가 부담되기도 했지만, 택시를 타고 학교로 들어갈 때마다 "다리만 말짱했어도 택시까지 타고 안 다녀도 되는데." 와 같은 자책감 때문에 나중에는 일부러 택시를 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몰상식한 연희관 건물에서 4층까지 이를 바둑바둑 갈며 계단을 한 칸 한 칸 목발을 짚고 오르면서도, 외출할 앞 언덕을 땅을 뿔뿔 흘리며 올라가면서도, 늘 나를 괴롭히는 것은 언덕의 높낮이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보다 "다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었다. '흔든하다.' '건강하다.' '아상이 없다.' 라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는 가치중립적으로 내 상태를 나타내 주는 말이 아니라, 자괴감과 자책감을 던져 주는 무시무시한 언어들이 되었다.

'장애인 문제'는 결코 '착한 비장애인' 들의 호의와 배려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자진 몸을 이끌고 목발과 함께 버스에 올랐을 때, 나를 보고 자는 척 하는 사람은 참으로 알미웠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 피곤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귀찮았을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이 문제를 논할 때, 보편적인 비정상, 정상,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이미 결론은 변한다. '그들'의 힘들을 마음으로부터 공감하고, 배려하자!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이야기로는 이제 아무도 감동시킬 수 없다. 그런 것쯤은 모두 다 알고 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이분법에 가려, 장애인 내부의 차이는 쉽게 간과되지만,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범주 안에도 수많은 다름이 있다. 목발을 짚었던 나처럼 거동이 부자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 등 장애인 내부의 다름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분명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만큼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차이도 크다. (여기서 잠깐! 지체장애와 정신지체는 다르다. 팔다리와 몸을 뜻하는 肢體와 늦어진다라는 뜻의 遲滯!) 그러나 장애인으로 규정된 범주 안에서 누가 더 '정상(비장애인)에 가까운가' 라는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는 다시 분류된다.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 정상을 규정하는가? 어떤 '정상성'의 기준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가? 장애인 내부의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한다.

목발 없이도 큰 불편 없이 걷게 되면서, 이러한 학교 건물의 불편함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곳곳에 온갖 문제가 펼쳐져 있어, 어느 것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리고 어느새 간사하게도 비장애인으로 타이틀을 바꾼 나는, "이런 것은 전의해 봤자 돈도 많이 들 것이고 너무 대공사이야." 하면서 문제제기를 미루고 있었다. 목발을 짚고 다니는 동안 그렇게도 저주를 퍼부었던 학교의 편을 들면서 말이다.

분명히 누군가는 코웃음 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심으로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안에 학교 구성원까지 운영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버스(이왕이면 천연가스버스!)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은 대학에 입학해서 친구들과 장난처럼 얘기했던, 캠퍼스의 끝에서 끝을 잇는 무빙워크도 좋다. 계단 때문에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는 계단을 없애야 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없는 곳에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돈 문제, 시간문제, 공사 기간의 소음 문제, 불편 문제(누구의 불편인가?)는 이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 한다.

발목을 다치자마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더니, 한 지인은 "넌 꼭 맞을 봐야 아니?"면서 핀잔을 주었다. 여성주의자로 자처하며 살아오면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나에게 그야말로 총알살인의 한 마디였다. 장애인 문제, 혹은 여타 다른 소수자의 문제를 '다수에 속해 있는 나'로서 간편한 감정 문제(힘드시겠어요, 눈물 펴고 끝내지 말 것,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쉬운 범주 규정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할 것, 이런 것들이 꼭 맞을 봐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은가, 고민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그래서 늘 중요하다. 행동의 방식은 각자의 삶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지면에 글을 기고할 생각이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착한 비장애인' 으로서의 시각에 찬 물도 좀 끼었고, 일단은 학내의 수많은 언덕과 벽들을 해치우기 위해 학교 당국의 옆구리를 콕콕 찔러 봐야겠다.

by_ 하로

화 날 뻔 내이지 그런 의미로다가 요즘 정려회장은 씁쓸, 고추장 먹어야겠다.

5월이 지났다. 많은 사람들이 5월 속에서 80년 광주를 기억하든, 대추리를 기억하든, 아카라카를, 축제를 기억하든 간에, 어쨌든 5월은 지났고, 이제 평택은 이따금 뉴스로만 들려올 뿐이다. 강제 집행이 있기 하루 전, "평택에 경찰 1만 1500명, 군부대 2800명, 용역 600명 투입. 평택 지켜라 오늘 저녁 같이가요"라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뒤로하고, 나는 밀린 일정을 핑계로 결국 그날 저녁 평택으로 가지 못했다. 그 날 밤 내게 문자를 보낸 사람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었고, 다쳤다. 그들이 곤봉과 방패에 의해 구타당할 때, 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부채감, 그리고 어쩌면 다시는 대추리에 갈 수 없을 거라는 쓸쓸함으로 5월은 지나갔다. 그러나 강제 집행이 있고 한달이 지난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평택을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80년 광주의 고립을, 점점 평택이 달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더 큰 두려움으로 남는 것 같다.

국가에 의한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그 모습을 달라지면서 80년 광주 이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적어도 군대에 의해 자국민이 진압되는 모습은 5.18 이후로 상상할 수 없었다. 아만에 대한 이해를 국가에 의한 개개인 육체의 침해라는 것에 한정시킨다면, 그러한 아만의 역사는 이제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단정했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과거의 독재자에게 명패를 던져 지지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는 광주가 아니라 2006년의 대추리, 도두리에서 26년 전의 과거를 되풀이 하고 말았다.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땅에서 세 번째로 쫓겨나기를 되풀이하는 주민들의 설움, 보상금 20억원이라는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 속에서 외면되고, 제 2의 광주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평택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친박반미 세력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은, 어쩌면 공권력의 폭력진압보다도 더욱 퇴행적이고 야만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이 과거 그렇게나 청산하자고 부르짖었던 색깔론쟁 속에서, 평택은 다시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고립 속에 새롭게 등장한 논리가 있다면, '폭력 시위'라는 이름 아래 경찰과 시위대 중 누가 더 맞았고, 누가 맞는 장면을 카메라로 포착했느냐, 따위의 지엽적인 책임론뿐이며, 그 속에서 국가폭력의 실체와 그에 저항하는 싸움은 삭제되어 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평택이 5월 광주의 모습으로 재현되는 이유는, 이제는 대추리와 도두리를, 그곳에서 있었던 야만적인 상황을, 모두가 잊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5월 광주에서 전두환이 행했던 폭력을 묵인했다는 것, 그 당시 아무도 광주로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아만을 사람들이 곧 국가 그 자체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광주를 하나의 역사적 유물로만, 선거철이 되면 여야할 것 없이 정치인들의 형식적인 참배행렬로만 남겨두었던 과거와 현재 속에서, 침묵에 관한 한, 망각에 관한 한 우리는 모두 공범자가 아닐까.

강제집행이 있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 대추리는 다들 것이라는 기대는 다시 무너져간다. 군경의 외부인 출입통제와 감시 카메라 속에서, 사람들의 망각 속에서, 대추리, 도두리 주민은 80년 광주와 같이, 철저히 잊혀지고, 고립되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폭력은 전체를 공략하지 않고 부분만을 공략한다. 그리고 그 폭력의 행위자가 국가가 되었을 때, 과거 나치가 그랬고, 박정희와 전두환이 그랬던 것처럼, 폭력의 대상은 가장 약한 자로 한정된다. 지금의 열우당과 노무현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생산해내고 있는 색깔 이데올로기 속에서 농민들의 생존권은, 공권력의 과잉진압 속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삭제되고 묻혀진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을 묵인하는 무감각 속에서, 평화문에는 이제 촛불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외치는 월드컵 열기만이 가득할 뿐이고, '대추리'는 이제 뉴스와 신문에 넘쳐나는 하나의 정보에 그칠 뿐이다. 다시, 아만에 대한 이해를 곤봉과 방패로 대표되는 눈에 보이는 폭력이 아닌, 개개인에게 투입된 일상의 것들로 정의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위태로운 것은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감수성이 아닐까.

나는 평택과 광주에, 망월동에, 태극기가 걸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80년 광주에서, 그리고 2006년의 평택에서 나타난 실체는 전두환과 노무현이라는 개별 정치인들의 범죄가 아닌, 국가에 의한 범죄 행위였으며, 국가주의의 이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아래, 보수 언론의 합작까지 가세해 개개인의 감수성에까지 국가의 정당성을 움직일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는 전략은,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어쩌면 더욱 교묘한 폭력의 실체일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야만스럽다고 해서 운동 역시 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5월의 광주가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 시민군들과 시민 자치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아직도 월드컵 열기 한편에서 묵묵히 촛불을 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가장 야만적인 상황에서 무엇보다 급진적인 운동이 나올 수 있음을 믿는다. 방관과 침묵이 곧 동의의 한 방법이라고 거칠게 정의한다면, 이제는 무관심의 정치가 아닌, 기억의 정치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평택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결국 '빠앗길 들'이 되어버릴지도 모르지만, 광주의 저항이 실패가 아니라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진 것처럼, 평택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by_ 아무도

잊지마, 죽지마, 부활할까?

나의 섹슈얼리티, 아직은 제목 없음 ^{sexuality}

몇 주 전, 집 근처 골목을 지나던 길이었다. 한 빌라의 주차장에서 웬 남자가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담배를 피며 자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주변에서 경황담을 꽤 많이 들었던 장면이어서 크게 겁이 나거나 하진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불과 몇 십 초 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 1) 저 인간이 나에게 지금 위협적인 걸까?
- 2)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있으니 나를 따라오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
- 3) 그래, 나에게 해 끼칠 건 없어.
- 4) 하지만 좀 혼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경찰을 부른다든지...
- 5) 만약 이 건물에 사는 거라면 나와 꽤 가까운 거리에 사는데 나중에 만날 일 없으려나?::
- 6) 에이, 모르겠다. 날씨도 추운데 그냥 집에 가자.

이런 과정을 거친 뒤 나는 그냥 그 앞을 스쳐지나갔다. (그 인간은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행동에 나는 이런 생각들을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하지만 그냥 가기는 너무 억울해서 '헛!' 하고 한 번 비웃어 주면서 쳐다봐주었다. 그런 인간들은 비웃어 주면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인간은 미동도 하지 않고 너무나 여유롭게 담배를 파우며 자위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집은 그 곳에서 몇 십 미터 거리였고, 나는 종종걸음으로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본 건 도대체 무엇일까?'

물론, 단순히 설명하자면 길거리에서 보란 듯이 자위를 하고 있는 한 남성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자신의 성기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바바리맨'도, 밤길에서 여성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려고 작정한 인간도 아니었다. 물론 그 상황은 맥락에 따라 충분히 성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을 겪은 나에게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이미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새벽녘도 아니고 12시가 갓 넘은 밤 시간에, 사람들이 지나

나는 골목길에서 마치 자기 혼자 보이지 않는 벽에 둘러싸인 듯이 자위를 하고 있는 남자라니,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고추 좀 보자'는 말로 성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해 주고, 자위에 대한 온갖 담론 - 심지어 구성에의 강연에서는 남자들이 자위할 때 좋은 티슈를 써야한다는 등의 이야기도 했었다 - 을 각종 매체나 이야기자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화,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는 것이 자신의 자아를 존중하는 것과 합치된다는 생각 등등, 여성으로서의 나는 경험하지 않았던 모든 문화들이 집중한 장면을 본 기분이었다.

나의 자위는 언제나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는데, 왜 저 남자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골목길까지 꺼낼 수 있는 걸까? 여성의 자위, 여성의 성욕에 대해서는 남성들의 이야기만 난무하고 정작 여성의 경험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데, 많은 그녀들의 경험은 아직도 공공 속까지 있는데 말이다. 내가 그 날 마주한 것은 그냥 하나의 남성 성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담안에 갇혀져 열린 공간으로 나올 수 없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였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점점 화가 났다. 꺼내지 않을 곳에서 성기를 척척 꺼내는 인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늘 욕망과 폭력의 경계 어딘가에서 뽐낼게 하는 것은 '가부장 사회'라는 한 마디 안에 있는 무수한 개인들이다. 바로 내가 본 그 남자처럼. 다음에 또 그런 인간을 만나면 소리라도 버럭 질러주리라 마음먹었다.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있다면 정중함을 발로 한 번 차주어도 편할 것 같다. 그리고 신뢰와 즐거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소중한 커뮤니티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야기 한 판을 계획해 보아야겠다. 여성으로서의 나의 섹슈얼리티에 얽혀있는 무언가 답답한 시선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 몸이 좀 즐겁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폭력과 위협이 될 수 있는 성적 실천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들을 혼내줄 수 있는 내공을 쌓기 위해서 말이다.

by_ 들레

오늘도 밝히는 하루

좌담

넌, 이름이 뭐니?

참가한 사람 지아, 발리, 제주도, 호일, 나나
정리한 사람 지아

그곳? 거기? 저기?
이런 말을 들으면 무엇이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불러보자. 보자?
이름은 중요하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
나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많은 정치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우리의
이름 아닌 이름으로 부르는, 혹은 보지, 자
현실은 성에 대한 가부장적 시선을 그대로

그리 하여, 나의 성기를 내 마음에 드는
몸과 이름의 경계를 넘나드는 어느
다만 창의력은 부족했기에 그
잔잔히 해나가기로 했

넌, 뭐라고 불러?

지아 얼마 전에 성기를 지칭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처음엔 '거기'라고 했다가 '성기'라고 불렀던 일이 있었어. 근데 '성기'라는 말도 딱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곳'이나 '거기' 보단 낫지만, 그리 썩 마음에 드는 이름은 아닌 거 같아. 그렇다고 '보지'나 '자지' 등으로 부르거나, 워낙 부정적인 맥락이 있어서 찜찜하고.

나나 나는 성기라는 표현은 정말이지 3인칭 같아. 내 눈, 내 귀, 내 코, 이런 건 안 그런데 성기라는 표현은 무지 낯설어.

지아 맞아, 성기라고 부르면 두발걸음 정도 떨어져 있는 느낌이야. (웃음)

제주도 원래 '기'자가 붙으면 그게 장기. 뭐 이런 거 내 몸 아닌 거 같잖아. '기'라는 말이 워낙 도구적이라 그래.

지아 그래도 성기는 좀 더 먼 느낌이야. 장기는 한 걸음, 성기는 두 걸음 정도?

제주도 영어로는 여성의 성기를 뭐라고 부르는데?

발리 바자이너, 바가나라고도 쓰는데 그건 일본식 발음이야. 요즘엔 잘 안 쓰지.

지아 응, 바자이너는 질이야. 음핵은 클리토라스고.

제주도 영화에 보면 아랫동네라고 많이 하는데, 처녀들의 저녁식사 봐도 그렇게 나오던데.

지아 아랫동네가 뭐야~ 진짜 구리다.

제주도 우리 엄마는 성기를 씻는 걸 뒷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자 성기는 뒤에 있는 게 아니잖아?

나나 근데 바자이너의 어원이 칼집이라는 뜻이라더라?

제주도 그럼 칼이 빠니스나? 우와 완전 KIN이다.

지아 응, 그리고 '질'이라는 한자도 달 월(月)자 옆에 방 살(室)이 붙어 있었잖아. 대체 누구의 방이냐 말이지.

나나 으엑,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이란 게 결국 남성성기중심으로 만들어진 거군.

호일 자궁(子宮)도 아들 재(子)에 집 궁(宮)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 마음 아프지만 여성의 몸을 아가를 낳는 '도구'로 보는 시선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말이지.

나나 아주머니의 어원이 아기주머니, 아가씨의 어원이 아기의 씨앗이라는 설도 있더라.

지아 그리고 난 음핵, 소음순, 대음순처럼 '음'달 음(陰)을 쓰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음양의 조화 어찌고 남자는 양, 여자는 음 하면서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양~청 긍정하면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억압하는 교묘한 술수도 너무 웃긴데, 이름에다까지 '음'자를 붙여야만 하는 건지.

어떻게 생겼니?

나나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여성들이 자기 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른다는 사실이야.

지아 맞아, 그냥 거울로 보면 되는데 말이지.

나나 나는 거울로 볼 수 있다는 그 간단한 사실도 대학 들어와서 처음 알았잖아.

모두 나도 나도 여성주의 접하고 나서였어.

호일 난 처음 내 성기를 봤을 때 사실 조금 실망했어. 색깔도 거무튀튀한 것아... 안 씻어서 그런 건가 했더니깐.

지아 나도 나도 좀 더 예쁜 색 일거라고 생각했어. 뭐 근데 모양은 예쁘더라, 색이 문제였지.

제주도 소음순이나 그렇지, 질 이런 부분은 섹스색 아닌가?

나나 맞아 맞아, 소음순이 제일 까매.

제주도 응, 내 생각엔 복숭아 단면처럼 생긴 거 같아.

지아 아냐, 복숭아 단면은 너무 단순하게 생겼잖아. 훨씬 복잡 미묘한 아름다움이 있는 걸.

제주도 나는 어렸을 때 고민이었던 게 음모가 날 때 허벅지 옆쪽까지 나는 거야. 털이 많은 편도 아닌데... 그래서 스스로 아만인이 아닐까 생각했어.

지아 나는 대학 때까지 차구에 털이 한두 개 밖에 없어서 발육이 덜 되었다고 생각했어. 근데 뭐 워낙 털이 없기도 하고, 이것 봐, (두 팔을 번쩍 들어 털이 한 두 가닥 있는 겨드랑이를 보여줌) 지금은 그나마 좀 많이 있어. 역시 발육이 늦은 건가. 씬.

발리 아무튼 생리할 때 털이 최악 싫잖아. 막 붙는 것이.

지아 그래? 난 안 그런데 역시 얼마 안 나서 그런가보다.

호일 나는 성기를 잘 안 보게 된 시기가 털이 나고 나서부터 인거 같아. 뭐 렌즈 염수룩해서 안 보이더라고, 아,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데 자위하거나 섹스할 때 쾌감을 느끼는 게 성기에 피가 몰려서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

지아 응, 흥분하면 피 몰려, 너 자위할 때 만져보면 통통해지지 않나?

나나 난 평소에도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지아 네 몸을 평소에도 좀 만져보지 그래. 흥분하면 평소 때랑 좀 다르단 말이지. 욕심썩신한 것이 부풀어 올라, 음, 마치 부드러운 케이크처럼, 난 그 촉감이 너무 좋던데.

처녀막의 진실

지아 나는 그것도 너무 궁금해. 질근육 있잖아. 그게 처녀막이 아니라 쫘뼛한 근육이 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럼 그게 파열되면 보호는 누가해?

제주도 처녀막이란 게 원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지아 응, 그래서 그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가 파열되면 출혈이 생기기도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럼 그게 왜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거 무리한 성기결합을 했을 때만 파열되는 거 아니야?

호일 아냐, 그거 되게 쉽게 파열된대.

지아 아 맞아, 자전거 타다가도 파열되고 그러지.

나나 나는 참에 성기결합 했을 때 피 안 나던데.

지아 응, 여성의 50%가 안 나온대. 그게 나의 조심스러운 추측인데, 꼭 첫 성기결합섹스 경험 할 때 난다고 그러잖아. 그게 충분히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거지. 뭐 아닐 수도 있고, 다음에 의대생 언니한테 물어봐야겠다. 질근육의 진실. 아, 그리고 난 그거 너무 싫어. 왜 산부인과에서도 성기결합 섹스 여부로 질 내시경 안 하고 항문 내시경 하는 거. 지난번에 산부인과 갔을 때도 그런 거 물

어보더라. 그래서 성기결합섹스는 안 해봤지만 손가락 넣어봤다고 했는데... 아 그럼 간접경험이 있으신 거야?
발리 그게 왜 간접경험이야. 말도 안 돼. 그나마 섹스 하지 나는 미혼, 기혼으로 표시하던데?

제주도 왜 그런 말 있잖아. 섹스 많이 하는 여성은 게 완전 여성을 순결함과 그렇지 않은의 이분법을 아직까지도 여성에게 섹스하는 건 마치 주홍 글씨 마한가진 것 같아.

지아 그거 '연애의 목적' 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 후에 강해정이 지나가는데 애들이 지나가면서 "선생님, 그대리가 벌어진 거 같아요." 하면서 비꼬는 거.

나나 맞아, 나도 아니라는 거 아는데, 처음 성기결합을 계속 확인하게 되더라니까, 나도 모르겠.

질의 각도

제주도 내가 지난번에 또 하나의 문화에서 나온 책에서 성기결합 단면도 그림 보고, 상상 했던 거 같아. 기하학~ 이런 형태구나" 라고 했더니 발리가 뭐 성기결합섹스 중중하면서 그것도 몰랐냐고, 그래서 할 때 단면도 그려보라고 뭐라고 했어. (웃음)

지아 나는 내 질의 각도가 어떤지 몰랐는데, 커터 어 처음에 한 네다섯 번 시도하다 실패하고 다음 했거든. 애가 죽어라 안 들어가는 거야. 아프기만 손가락을 먼저 넣어봤더니 생각했던 모양이랑 다 양처럼 휘어졌더라고. 손가락 각도 보고 따라가서 쑥~하고 들어가서 너무 신기했어. 방향을 몰부딪히더라니까.

제주도 그래 참에 성기결합 섹스를 할 때 각도도 흡입이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뭐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호일 손가락 넣어보면 다 안 들어가잖아. 걸리는 거.

지아 그게 자궁경부 아냐? 딱딱한 단추 같은 거. 무지 약해서 감염 위험 있어.

어떤 이름을 원해?

나나 성기에 어떤 이름을 붙이고 싶어?

지아 내 몸 중심적인 이름을 붙이고 싶어. 다른 상관없이, 그냥 오롯한 내 몸.

나나 나는 여자 성기에 대해서 칼집에 대해서는 말을 생각했는데 너무 이상해. 중심주의적인 것.

제주도 응, 구리다. 진공청소기 생각나.

지아 그래, 용도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질의 건 아니잖아. 질을 통해서 월경혈도 나오고, 냉도.

제주도 삽입이라는 남성성기 중심적인 말에 대한



기?
르는가?
자? 흠, 영 찝찝하다.
상을 인지하며, 그 미지의 대상이
고 어떤 이름을 짓느냐에 따라 그 안에는
성기를 명확한 이름 없이 그곳, 거기 등의
등의 비속어나 학술적인 단어로만 지칭하는
잡하고 있다.

이름으로 부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찬 그녀들이 모였다.
남, 함께 나는 유쾌한 수다는 계속 되었다.
한계를 절감하며, 새로운 이름을 짓는 것은
지만.

릭이나 탐폰 같은 건
군요? 이러한 거야
스경험 묻는 건 다형
다리 벌어진다고 그
나누려고 하는 거고
이마에 새기는 거나
학교에 소문 났 짜진
님 오늘 따라 이상하
장면 진짜 실은데
합색하고 나서 내

다리 벌어진다고 그
나누려고 하는 거고
이마에 새기는 거나
학교에 소문 났 짜진
님 오늘 따라 이상하
장면 진짜 실은데
합색하고 나서 내

우리 몸, 우리 자신
왜나 달라서 '와 신
하고 하는 거야. 너는
내가 너는 그럼 섹스

를 넣어보면서 알았
생리할 때 결국 성공
하고 마지막 시도 때
더러 약간 갈고리모
있었다니 어느 자정에
했던 거지 웬지 짜랑

는 게 있잖아. 그래서
도가 아니야. 질이 열

있어서
그거 만지면 큰일 나

한 것과의 관계장은
미에서 '흡입기'라는
아서 구려

도가 흡입에만 있는
오고, 아기도 나와
워서 쓰는 '흡입'이라

는 말이 여성주의적으로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
도 성기결합섹스 중심적인 것 같아. 이성애 중심적이기도 하고.
자아 뭐 꼭 이성애 중심적인 건 아니지 손가락이 들어가기도 하고~ 달
도, 오이, 당근, 바나나...

제주도 농악이랑 새군 어쩔 거야

자아 콘돔 씌워야지 당연히 뭐든 콘돔을 씌워야 안전하고 깨끗한 자위
나 섹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나 나는 애인이랑 서로 성기 이름 붙여줘.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 우
울쭈쭈하면서 니꺼 어찌고 안 해도 되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고, 편해

자아 나도 옛날에 애인 성기에 이름 붙여줬는데

제주도 나도 근데 나는 붙여주지만 하고 내 이름은 못 받았어

나나 나는 내 성기 이름은 내가 붙였어

자아 이름 뭔데? 가르쳐주면 안돼?

나나 그냥 정치적인 의미는 없고 그냥 붙인 거야. 에이 안돼 프라이버
시아 넘어가

자아 예전에 10일만에 남자친구에게 차이는 법인가? 할라우드식 로맨틱
코미디영화를 봤는데 매력적인 여주인공이 남주인공한테 차하려고 별별
방법을 다 쓰거든. 그 중 하나가 남자 성기에 나의 귀여운 프린세스 식의
'여성스럽고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이름을 붙여주는 거였어. 불
라블라 프린세스~ 하고 불렀더니 남주인공이 성질을 버럭 내면서, 발기
했던 게 딱 가라앉고 섹스할 맛 떨어졌다고 가버리라고 그러더라고.

발리 그게 왜?

자아 페니스가 얼마나 강한 남성성의 상징이나. 자존심의 결정체사잖아.
거기에 귀엽고 깜찍한 이름을 붙여주니 자존심에 상처를 확 받은 거지.

나나 음, 생각해보니 남자 성기를 지칭하는 말들은 비속어라고 정말 많
은데 여자 성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제주도 근데 이름 짓는 건 진짜 어려운거 같아. 정치적으로 올라보고,
마음에 드는 이름.

발리 인 올라보더라도, 마음에 들면 땀이지 뭐

자아 그러게 역시 창의력의 문제인가? 하긴 급할 거 있나. 천천히 짓자.
땀기는 이름이 생각날 때.

1) 원래 명칭은 절근육이다. '채찍'이란 '박'이 아니라 (진짜 '박'이면 팔경은 어떻게
하겠는가?) 풍속으로 나쁜 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질 입구를 보호하는 근육조직이
며 신축성이 있는 주름을 말하는 것이다. 채찍은 손잡이(대음로)가 만들어낸 것이
며 첫 성교 시 채찍이 파열 된다는 것도 잘못된 통념이다. 여성들의 50%만 절근
육 파열 시 피가 나며, 평소 심한 운동이나 외부 충격을 통해서도 파열 될 수 있다.

2) 커다란 고무로 만든 삽에 월경혈을 받아 오는 흡입형 생리대이다. 익숙해지기 전
까지는 아프다는 사용후기들이 있지만,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그 편안함에 중독 된다.
고 한다. 환경친화적이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제9회 여성제

[Open-Ended] 4/5

제 9회 여성제를 함께 꾸려갈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9월,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여성제가 열립니다.

여성의 목소리로 현실을 꿰뚫는,

그닥 유쾌하지 않은 세상을 유쾌하게 뒤엎는

그녀들의 한 판 축제가 열립니다.

여성주의를 통해 새롭게 구성하는 일상에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기획단 신청 방법

총여학생회 메일(empower@yonsei.ac.kr)로
신청해주세요!

첫 모양 7월의 어느 날, 총여학생회실에서
(자세한 일정 추후 공지)



Illustration by 우아디 후우코



여자친구들아, 떠나자!

바른 일상 속에 치여 살다보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솟아오른다. 나 혼자 또는 여자 친구들과 함께, 국내든 국외든, 산이든 바다든, 어디든지. 하지만 여성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그러한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여성들끼리만 다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물론 집 밖으로 나온 여성에게는 많은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요소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러한 위험이 있으니 여성들은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성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던져본다. 여성의 여행을 말할 때 전사회적으로 그것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되는 것은 단순히 사회가 여성들의安危를 걱정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여행을 통해서 그동안 억압되어 왔던 여성의 자유가 여행을 통해서 얻게 될 것에 대한 가부장적 사회의 두려움이 투영되는 것일까? 여행을 시도하려 하면 흔히 나오게 되는 반대 이유를 생각하며, 나의 여행기를 추억해본다.

작년 여름, 나를 포함한 네 명의 여자 친구들은 태국으로 6일간의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가기 전 여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평소엔 친구네 집에서 자는 것조차 선뜻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분들이신지라, 부모님이 예상보다 쉽게 허락하신 것에 매우 놀랐다. 물론 허락은 하셨지만, 부모님은 걱정이 되셨는지, 출국 전까지 사람 조심, 차 조심을 누누이 말씀하셨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여행하는 데에

는 국내보다 국외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사실은 국내든 국외든 '위험'에 대한 공포는 여자에게도 깊숙이 내면화된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은 스스로를 약한 존재로, 밤거리나 외딴 곳으로 혼자 혹은 여성들끼리만 다니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학습하게 되었다.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이렇게 학습된 공포는,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여성의 행동을 제약하게 만들었다.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 것을 제외하면 5일 정도를 태국에서 보낸 셈인데 그중에서 이들은 가이드 없이 우리끼리 돌아다녔다. 가이드 없이 돌아다니는 이들은 위험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우리들은 서로 맡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여자들끼리 다니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은근히 주위를 경계했다. 낯선 곳이다 보니 그런 마음은 더했다. 조금이라도 무섭게 생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움찔움찔. 한 번은 어떤 남자가 계속 쫓아온다는 느낌이 들어 황급히 근처에 있는 가게로 들어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살펴본 적까지 있었다. 그렇지만 우려했던 일은 전혀 벌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다.

여성들끼리 여행을 할 때면 흔히 함께 놀아주겠노라고 호의 아닌 호의를 베푸는 남성들이 있다. 이런 생각은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하루는 바닷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신선놀음을 즐기고 있었다. 수영을 못해 튜브를 끼고 혼자 동동 떠다니고 있던 나에게 어느 외국인 남자가 말을 걸었다. "수영 못하셔요?" "아, 아이 캔트

스...스вим...(땀 뻘뻘)을 더듬더듬 외치며 딴 곳으로 가려 했지만 아무리 팔다리를 허우적거려도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영어를 잘 못하는지라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남자가 하는 말은 대략 이랬다. "나는 파키스탄 사람이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과 파키스탄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저쪽에 친구들이 있는데 함께 놀지 않겠느냐" 다 행히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발견한 나의 친구가 내 옆으로 와서 영어로 말하는 것을 도와준 덕에 서로 bye~하며 헤어졌다. 여자 친구들끼리 노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즐거운데 왜 그걸 모르는지, 같이 놀아줄 남자가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건지 이것 역시 모르겠다.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을 피하는 것과 함께 이런 '남성분'들도 피해 다니려니, 즐거운 여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구나.

여행의 기억을 되살려보면서 여성과 여행의 관계에 대한 의문점만 늘어간 것 같다. 많은 의문을 안고 나는 오늘도 희망해본다. 혼자서 혹은 여자 친구들끼리 여행을 떠나는 것을, 여행사나 가이드의 도움 없이 낯선 곳에서 그저 발걸음 가는 대로 돌아다니는 여행을, 돈이 많이 없어도, 목을 곳이 마땅히 정해져 있지 않아도 좋다. 전에는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여성주의를 만나고, 멋진 여성들과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여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을 발견했으니까.

by_ 코알

걱정이나 방해 따위 없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이 마음

여성교육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

월경 공결제

여성 교육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 월경 공결제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대 총학생회는 월경 공결제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석제는 총학생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총학생회실에 오셔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학내 곳곳에 배포되어 있는 <월경 공결제> 자료집을 참조하세요. 자료집은 총학생회실(학생회관 3층)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 교육권 확보를 위한 월경 공결제의 보다 빠른 제도화를 위해, 시범 운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결석제 받는 곳

총학생회 홈페이지 yonsei.ac.kr/~ysfem 총학생회실 학생회관 3층

문의사항은 여기로!

mail: empower@yonsei.ac.kr tel: 02-2123-3645

월경 결석제는 한번에 이틀까지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 후 3주가 지나야 다음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석제는 한 학기에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연 후기

‘차이만 있고 차별은 없는 세상’은 없다고?

-여성주의 학교 두번째 강연회 “저는 동성애자를 인정합니다, 라는 권력” 강연 후기

처음 강사님을 보았을 때 궁금했던 것은 “저 분은 동성애자일까?”였다. 제목부터 동성애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강의였으니 최소한 이성애자면 이성애자라고 밝히시겠지 하고 기다렸건만 강사님은 나의 기대를 무너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성향이 드러나는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셨다. 으레 과감하게 커밍아웃하는 사람을 볼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내 상상과는 철저히 빗나가 버렸다.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은 없애자.” 중학교 때 도덕 교과서에서 보고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었다. ‘우와~ 같은 ‘차’자로 시작하는데 하나는 인정해야하고 하나는 없애야 하다니.’ 강연을 듣던 중 내 머릿속에 들어와 박혀버린 문장, “차별이 차이를 구성한다”는 내가 알던 차이와 차별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왜 어떤 차이는 눈에 잘 보이고 우리의 행동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반면에 어떤 차이는 인식조차 못할까? 예를 들어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나이, 성별, 옷차림을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나의 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반면 컷팅이 있는지, 안경을 썼는지, 굵슬머리인지는 유심히 보지도 않고 내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차이는 편향과 차별만이 문제인 게 아니라 차이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이미 차별을 바탕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동성애자는 동성을 이성애자는 이성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왜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란 구분, 차이가 생겨났고(동성애, 이성애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은 200년도 되지 않았다) 이로 해서 만들어진 권력관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한다. 굳건한 이성애 중심주의가 아무리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겨 인정해주어도 그들 안의 이성애/동성애의 구분을 허물지 못하면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아직 동성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동성애/이성애의 구분을 허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성애자들의 인정만을 바랐던 동성애자로서 어떤 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한 강연이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 우리에게 주려는 생각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배움이었다.

by_ 오리팩팩

연세이반공동체 Come Together



워크샵 후기

기억을 떠올리며 강해지는 그녀들

여성주의 내공쌓기 세미나를 하던 때였을까? 막연히 우리끼리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하면 참 좋겠어, 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 총여실 문을 나서며 행복한 미소와 꼭 잡은 손으로 약속을 했다. 꼭 그렇게 하자! 그리고 머지않아 반성폭력 문화제의 프로그램으로 ‘성폭력 피해 생존자 워크샵’이 기획되었고, 나는 나의 경험을 오롯한 나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다. 그리고 두려웠다.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나의 경험은, 십년이 넘도록 죽어있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나지 않았던 간에 나에게 아무 일도 아닌 것이었다. 심지어 한 교수님이 “너희들 중에 성폭력 피해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 전부다 성폭력 피해자야.”라는 말에 나는 성폭력 피해의 경험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 나에게도 피해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다. 갑자기 붓물처럼 밀려 오는 나의 끔찍한 경험들은 내 안에서 죽지 않고 꿈틀거리며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입을 틀어막으며 구토감을 참으며, 삼키던 그 경험은 내 마음을 잠식해버렸다.

워크샵 사전모임을 하면서, 그리고 워크샵 날짜가 다가오면서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 말하기를 해야지, 라고 마음먹었지만, 그 결심은 계속 변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말하기를 준비하지 못한 채 워크샵에 참가했다. 워크샵 장소에 도착해서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또 다른 생존자들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며, 마음을 다독였다. 불이 꺼지고, 방 한 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촛불, 그 촛불이 흔들리듯, 내 마음도 흔들리고, 말하기는 시작되었다. 나의 경험을 말하며,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행복했다. 너무 힘들어 말하기를 멈추기도 했지만, 친구들이 있어 견딜 수 있었다. 새벽 5시가 다 되도록 말하기는 계속되었고, 그 시간 속에 우린 서로에게 의지했다. 아직도 나를 잡아주던 따뜻한 손길, 안아주던 포근한, 힘이 되는 말들을 몸은 기억하고 있다.

말하기가 끝나고, 한층 편안해진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아무에게도 하지 못해 평생 끌어안고 갈 일이라 생각했던 일이 내 입을 통해 나와, 내 속의 그 기억을 끄집어내어

나를 시원하게 해주었다. 책을 통해 생존자에게 speak out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나에게 용기를 내어 말하게 해준 워크샵이었다.

다음날 아침, 새로운 프로그램인 춤 테라피가 진행되었다. 다양한 동작을 하고, 서로를 따라하며 즐거운 몸짓을 표현했다. 파리 같은 서로의 짐을 잡아내버려, 고민을 없애는 것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나를 고-옥 안아주는 것은 따뜻했다. 내 파리 같은 짐을 때어내고 있는 파트너가 날 안아줄 땀 눈물이 핑 돌더라. 그리고 내가 나를 안아주며 생각한 건데, 그동안 나를 너무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에 눈물이 핑 돌더라. 하나하나 나의 몸에 사랑을 주자, 따뜻해지며 반응하는 나의 몸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었다. 그래, 나를 좀 더 사랑하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고맙고, 고맙고 또 고맙다는 거다.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나를 안아줘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해줘서. 정말, 참가자들을 빙 둘러보는데 어찌나 하나같이 모두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용기를 내준 나도 참 이쁘다!

워크샵이 진행되는 이틀간 나는 너무 많은 힘을 얻었다.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아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된 그 원동력을 얻었다. 끈끈불끈 솟아 오른 나의 힘은, 이제 200% 발휘하여 가해자에게 펀치를 날릴 것이다. 좋아, 이제 시작이다!

Special thanks to.. 우리의 눈물 웃음 다 닦느라 수고한 이쁜 꽃무늬 휴지들, 어두운을 밝히느라 자기 몸 녹는지도 모르고 함께한 향초, 따뜻한 말로 진행을 도와준 이산, 춤 테라피스트 모모, 그리고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들어준, 날 너무나도 따뜻하게 안아준 모든 참가자들에게, 내 마음을 담아 사랑해 ^-^

by_ 생존자 코코비
너희들, 너무 아름다워 눈부세

영화 후기

정의파 언니들을 만나다

"우리들은 정의파다 좋다 좋다 같이 죽고 같이 산다 좋다 좋다 무릎을 꿇고 사느니 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 우리들은 정의파다"

무릎을 꿇고 사느니보다는 서서 죽기를 원한 그녀들은, 기계를 뚫을 수 있을만치 몸집이 커지기가 바쁘게 공장에 들어간 어린 노동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녀들은 정의파였다. 동원사건과 빈나체시위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동일방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다큐멘터리, <우리들은 정의파>가 5월 10일 광복관 모의법정에서 총여학생회 주최로 상영되었다. 이 영화는 지난 4월에 개최된 제 8회 여성영화제 최고의 화제작이었다. 거대한 지배 권력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만 하는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여성 노동자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알아서 공동체 내부의 외식화작업을 마치고 겉도 없이 싸우는 '여성노동자'를 보여주었기에 그러했다. 대부분 남성의 역사로 기억하는 한국 노동 운동의 역사를, 여성노동자의 삶을 통해 더듬어 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기에 그러했다. 그리고, 역사의 한 것으로만 기억되던 그녀들이 78년의 사건이 어찌 일어난 일인 양 투쟁하고 있음을 알렸기에 더욱 그러했다.

여성영상집단 속에서 만든 이 작품은 동일방직에 근무하다가 '자옥갈지' 않은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민주노조를 지켰던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전국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던, 이제 28년의 세월이 지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줌마'가 되어버린 언니들의 목소리를 통해 당시의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 파란 유니폼을 입고 통발을 맞춘 채 고개를 떨구고 있던 사진 속의 옛날 언니들, 지금은 주름살로 지나온 세월을 보여주는 언니들은 가끔은 눈물짓고 가끔은 까르르 웃어대면서 그 시절로 돌아간 양 생기 넘치는 얼굴로 꿈꾸듯이 아픈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와 함께 사건을 겪는 나도 함께 울고 웃었다. 그녀들의 투쟁, 그녀들의 승리는 나의 투쟁, 나의 승리처럼 여겨졌다. 그것을 위한 그녀들이 겪은 고통과 모욕적인 폭행을 지켜보며 그 괴로움에 나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다.

28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기술하는 그녀들의 얼굴에는 희석되지 않은 한이 서려있다. "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언니 끌고가지 말아요'라며 울던 예들의 목소리로 들리는데, 그게 그 다음 해에도 다음 해에도 개구리만 울면 그렇게'며 눈물을 짓던 언니. 그런 깊은 상처에도 그녀는 공장에 다시 찾아가 입구를 막는 직원들에게 매섭게 호통치고 예전에 그렇게 혼나던 사무실이 아직도 가슴 떨리면서도 그 앞에 서서 '우리들은 정의파' 노래를 부른다. 그 흔한 여덟 글자씩 끊어지는 구호나 '투쟁'이라는 외침이 없어도 언니들의 투쟁은 그 누구보다도 가열차다. 여성이 주체가 된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 기쁨과 그 이면의 쓰라림이 뒤섞여 옹기 가습이 박차온다.

이해란 감독은 상영 후 대화 시간에 "이 작품을 하며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언니들도 저를 활동가로 인정하고 대해주셨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투쟁의 삶을 살아온 언니들은 지금의 사회에서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모순에 저항하고, 소외된 자들의 이야기를 영화에 담는, 감독으로서의 투쟁을 진행하는, '언니들을 닮은' 그녀를 알아본 것이 아닐까 싶다. 언니들은 포기과 패배의식, 그나마 잘 됐어 식의 수동적인 안도의 자세를 보여주는 대신, 멈추지 않는 에너지로 파르르 모여 또다시 원직·복직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가면 세상에 다시 균열을 내는 작업을 한다. 나는 혀를 내두르며 지지하는 수밖에 없다. 언니들이 부르면 노래처럼, 그녀들은 자못하게 정의파임에 틀림없다.

by_ 작품
알하는 자들

서평 뱀을 밟다

가와카미 히로미의 '뱀을 밟다'에서 발견하는 가능성 성찰과 환상, 그리고 페미니즘



문학, 혹은 예술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 혹은, 예술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일까? 이러한 나의 물음은 시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개체성에 대한 총체적인 관망을 요구한다. 계몽주의 시대의 산물인 부르주아적 모더니티가 만들어낸 원리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해체되었다. 또한,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로 형성되어온 낭만주의나 아방가르드 역시도 그 한계를 드러내며,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영역 이상으로 확장되지 못하는 답답함을 내게 준다. 나의 태생적인 시대성은 계몽주의와 그에 대한 해체주의의 유산을 모두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동시에 그것들에 융합될 수 없게도 만들었다. 예술이 정치와 도덕에 의존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삶과 예술을 분리시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술의 자율성은 또 무엇을 담보해주는가? 사회의 무엇과도 연관되지 않은 채, 예술이 자신의 독립적인 공간 안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더 이상 시대적 특별함을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수많은 해체론들이 등장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더 절실할 것이다.

페미니즘은 이러한 나에게 새로운 정치학을 제시한다. 페미니즘은 매우 구체적인 나의 삶에서 타인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를 응축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시대와 사회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새롭고도 진실한 사유방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페미니즘을 무언가에 대한 해체만으로 - 이제까지 유효하지 못한 방식으로 형성되어온 정치학을 해체하고자 하는 시도일 뿐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물론, 페미니즘은 '해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시작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찰의 방식,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려는 시선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면, 해체하는 것을 통해 동시에 새로운 것들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페미니즘이 스스로 안고 있는 성찰의 힘은 문학, 혹은 예술에서도 매우 매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가와카미 히로미의 소설이 바로 그 힘을 느끼게 해 주는데, 삶과 동떨어질 수 없는 문학이 삶과 얼마만큼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에 대해서 그녀만의 독특한 색채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성찰과 문학적 환상이 서로 오묘하게 녹아들어가므로서 나타난다.

소설은 주인공 미도리가 공원 가는 길에 뱀을 밟게 된 것으로 시작한다. 밟힌 뱀은 "밟혔으니 아쩔 수 없네요."라고 말하며 그 때부터 미도리의 집에 거주하게 된다. 뱀은 종종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서 미도리에게 밥을 챙겨준다. 뱀은 자신이 미도리의 어머니므로, 뱀의 세계로 가자고 미도리를 계속 설득한다. 미도리는 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미도리는 뱀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른 채 일상을 보내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일하는 곳의 여주인 니시코씨에게도 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뱀이 찾아오는 것은, 자신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종종 찾아오는 일인 것이다. 미도리와 뱀의 갈등은 계속 고조되는 동안 니시코씨의 뱀은 죽어버렸다. 니시코씨는 뱀이 다시 온다면 뱀의 세계로 가버릴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미도리는 끊임없이 뱀의 세계로 오라고 재촉하는 뱀에게 결국 '뱀의 세계 따윈 없어.'라고 말했다. 뱀과 미도리는 서로의 목을 조른다. 그러는 사이 미도리의 방은 엄청난 속도로 떠나려간다.

가와카미 히로미가 묘사하는 세계는 전혀 말도 안 된다. 뱀이 말을 걸고, 인간으로 변해서 밥을 챙겨주고 하는 것들. 작가는 스스로의 작품을 남몰래 '거짓말'이라고 부른다고도 한다. 그러나 그녀가 그려내는 세계가 단순한 허상은 아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수없이 접하는 것들, 발견해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로 모두 이루어져 있다. 다만 그것들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지고, 상식으로 통하는 사물들의 배치가 그녀의 작품 안에서는 모두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 인간의 세계와 뱀의 세계는 다른 세계이지만, 서로 넘나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와 상관없었던 다른 무언가가 나의 삶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 열려진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내 삶과 타인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한다. 때문에 미도리는 자주 뱀을 때리고 뱀과 서로 목을 조르기도 하며 그렇게 살을 이어나간다. 나는 미도리가 뱀을 밟았을 때의 그 느낌을 떠올리며, 내 삶의 어떤 감수성을 발견해낼 수가 있었다. 뱀의 세계가 상징하는 바, 생생하게 내 몸이 기억하는 어느 순간들을 가와카미 히로미는 그녀의 문학적 상상력으로 환상적인 형식에 담아내고 있다.

<뱀을 밟다>는 페미니즘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소설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페미니즘의 방식, 타인과 세계를 바라보는 페미니즘의 성찰적 힘을 이 소설은 고스란히 담고 있다. 가와카미 히로미의 '거짓말'이 만들어내는 생생적인 에너지가 담고 있는 가능성은, 단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페미니즘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by_ 고래



출처: 동일방직 레고노동자 복직추진 위원회

2006 여성주의 학교 두 번째,
[여성학 심화 세미나]에 함께해요!

지난 4월에 있었던 첫 번째 여성주의 학교 <여성주의 내공쌓기>에 이어, 여름 방학 중에도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두 번째 여성주의 학교를 진행합니다. 6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7번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유쾌한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 6월 26일까지 총여학생회 email(empower@yonsei.ac.kr)로 연락주세요. 커리큘럼과 세미나 주제는 추후 총여학생회 홈페이지(www.yonsei.ac.kr/~syste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